

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소리
시옷

VOL 36



전라남도
완도 평일도

PHOTOSTORY
LIFESTYLE
RESOURCES
PEOPLE
TRAVEL
NEWS & ISSUE

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소리
시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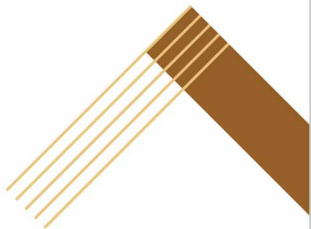
VOL 36



전라남도
완도 평일도

PHOTOSTORY
LIFESTYLE
RESOURCES
PEOPLE
TRAVEL
NEWS & ISSUE

CONTENTS



PHOTOSTORY : 사진이 들려주는 섬 이야기

04 호남약도, 다시마 건조장, 섬 풍경

LIFESTYLE :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06 평일도 민속신앙. 신평리 당제

07 주민의 손길과 땀으로 영그는 평일도 다시마
청정 완도와 보해양조가 만났다. '다시, 마주'

RESOURCES : 섬, 무엇이 나고 자라나요?

08 1월부터 12월까지, 평일도 바다와 밭에서 나고 자라는 모든 것
책으로 만나는 어촌 속담집『漁村俗談集』(1980년)

09 바다생물 인문학 : 다시마(昆布)

PEOPLE :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0 완도금일수협 박찬진 경매사

13 금일읍 소랑도 유희동 이장

TRAVEL :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16 평일도 투어 가이드

18 평일도 섬 여행 명소

20 <특집> 완도금일수협 다시마 위판 이모저모

NEWS & ISSUE : 섬, 소식을 전해 드려요.

22 이달의 주요 섬 뉴스



섬 단어사전

완도 평일도

해수욕장

#완도군

#금일읍

#평일도

#해수욕장

2024년 기준, 전남에는 12개 시·군 66개소(여수 15개, 신안 15개, 고흥 11개, 완도 10개, 진도 가계·관매도·신전·금갑, 무안 홀통·툼머리·낙지공원, 해남 송호·사구미, 영광 송이도·가마미, 보성 울포솔밭, 장흥 수문, 함평 돌머리, 목포 외달도)의 지정된 해수욕장이 있으며, 7월 6일부터 8월 18일까지 58개소가 개장되어 운영하고 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에 의하면 지정 해수욕장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백사장, 산책로, 탈의시설, 샤워시설, 화장실, 식수대, 주차장, 야영장, 공중이용통신시설, 차양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안전부표, 유영가능구역부표, 조명시설, 감시탑 등 안전시설, 오수·폐수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쓰레기집하·처리시설 등 기본시설과 기능시설을 갖춰야 한다.



도움 주신 분

완도군 금일읍사무소

완도금일수협 홍보팀

완도금일수협 박찬진 경매사

소량도 소량마을 유희동 이장

전남도청 김지영 주무관

참고문헌

정약전, 『자산어보(玆山魚譜)』, 1814

농상공부 수산국,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 1910

전라남도, 『호남약도(湖南略圖)』, 1965

전라남도, 『어촌속담집(漁村俗談集)』, 1980

이근우 역, 『한국수산지』3-1 : 전라남도, 2018

금일읍지편찬위원회, 『금일읍지』,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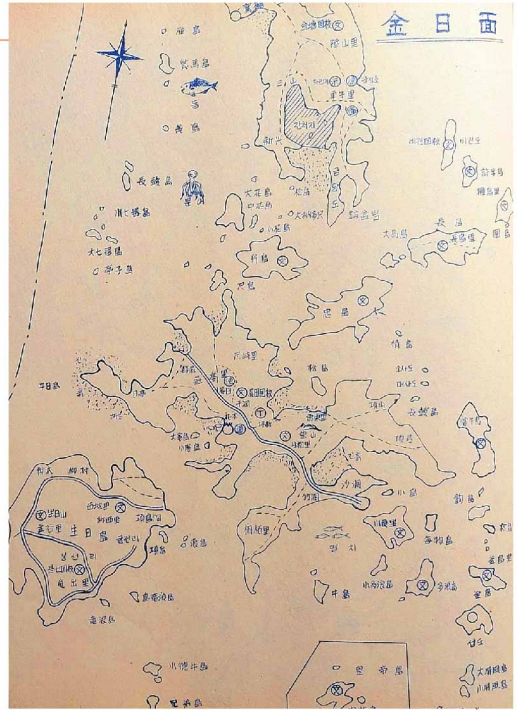
PYEONGILDO



PHOTO STORY

사진이 들려주는 섬 이야기

호남약도(湖南略圖) ▶
완도군 금일면 평일도(1965년)



완도군 금일면 평일도

평일도(平日島)는 오래전 외적의 침입으로 인한 피해 없이 평화로운 생활을 지속한 데서 지명이 생겼다고 전해진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다시마 생산량이 많은 지역으로 손꼽히며 일약 부촌으로 그 명성을 알리는 가운데, 돈이 많이 나는 섬이라는 뜻을 지닌 금일도(金日島)로도 불린다. 대다수 주민은 농·수산업을 겸하며 생업을 잇는데, 특히 다시마, 미역 등 해조류 양식 산업이 발달했다.

역사적으로 이 섬은 고려시대에 장흥부 관산면에 속했다가 1621년 고금진에 이속되었다. 1890년에 여수군 거문진으로 편입된 후 1896년 크고 작은 섬으로 이뤄진 지도군(智島郡), 돌산군(突山郡)과 함께 완도군(莞島郡)이 설치되면서 이에 소속되었다.

1910년 무렵인 일제강점기에는 금당면의 남쪽에 있는 평일도와 인근 섬들을 아울러 평일면이 되었다. 이 지역에는 동남쪽에 접한 소랑도와 동쪽의 다랑도, 가마도, 섭도와 같은 작은 섬이 차례로 늘어서 있다.

근대 시기 문헌 자료 중 『한국수산지』3-1 : 전라남도편에 소개된 평일도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섬 안에 산줄기가 이어진 곳이 적고, 가장 높은 곳은 섬 중앙에 산으로 솟아 있으며, 경작지가 많다. 연안은 굴절이 심하며, 갑자기 돌출된 곳과 만 형태를 이룬 곳 등이 많지만, 모두 갯벌이므로 선박 접안이 어렵다. 다만 염전 개발에 유리한 곳이 많다. 섬 안 마을은 6개로 주민들은 주로 농사를 짓는데, 어업을 생업으로 삼는 이가 적다. 섬에는 25척의 여선이 있다. 어채물(漁採物)은 조기, 삼치, 가오리, 갯장어, 서대, 도미, 전복, 우뚝가사리, 풀가사리, 김 등이 있지만, 생산량이 적다. 이 섬에서 연간 생산하는 소금이 약 17만 근 정도이다.



‘다시마 건조장’

#완도군 #금일읍 #평일도
#다시마 #자연건조 #건조장

발 달린 하늘, 물에 오르다.

푸른 하늘을 가슴에 묻은 바다. 그렇게 깊이를 더한 바다는 물에 이르고 싶었다.

간절히 빌면 없던 발도 생겨나는걸까?

비로소 걸을 수 있게 된 바다는 물을 향해 나아가 평일도라는 섬에 이르렀다. 아늑한 들과 산이 끝없이 이어지던 정취에 사로잡힌 나머지 드러누워 휴식을 청하였다. 한동안 뜬눈으로 밤과 낮을 지내던 바다는 비로소 하늘과 같은 푸르름이었구나 싶은 마음에 마음을 놓았다.

그렇게 보듬었던 하늘은 바다와 함께 섬을 적셨다.

전남섬발전지원센터 강민구

1



등교 시간에 맞추어
학교를 찾은 어른과 섬 학생

2



평일도 명사십리 해변에서
만남 오후의 얼굴

3



영화 세트장처럼 고풍스러운
모습을 간직한 평일이발관

4



노을을 곁에 두고 해안을
거슬러 오르는 주민들

LIFE STY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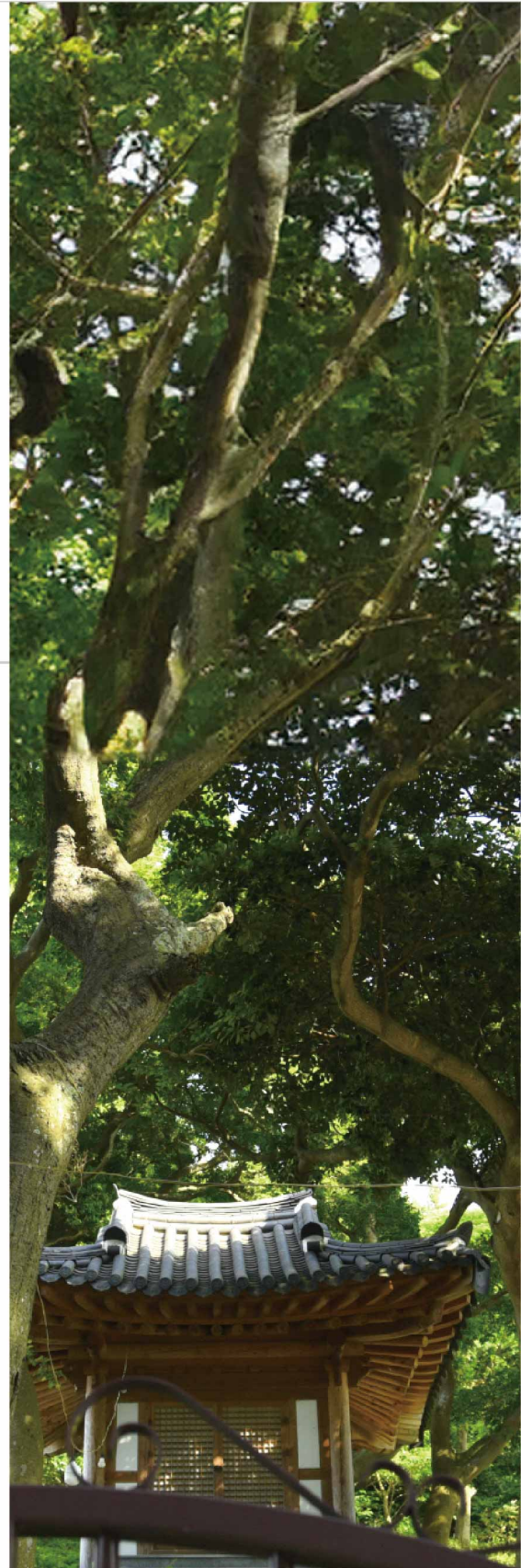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평일도 민속신앙 신평리 당제

신평리에서 후포리·동송리로 넘어가는 고갯길에는 주민 공동체에 의해 거행된 당제 공간이 있다. 마을공동제사 형식의 당제가 거행된 공간에는 수령이 수백 년에 이르는 팽나무가 여러 그루 있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이와 더불어 숲에는 기와지붕을 얹은 제당(祭堂)이 한 채 있는데 당할머니를 신으로 모셨다.

매년 정월 초이튿날 자정 무렵 거행된 당제는 음력 12월 말경 마을 회의를 통해 선출된 제주(祭主) 세 사람의 주도로 진행됐다. 제주는 제일(祭日)에 이르는 동안 집안에 금줄을 치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으며, 당샘에서 목욕재계를 하는 등 몸과 마음을 단정히 했다. 제물은 떡과 나물, 국, 밥 한 그릇을 기본으로 삼았는데, 마른 명태와 대구를 각각 세 마리씩 올린 특징이 있다.

지금은 제당 출입문이 닫혀있어 오가기 어렵지만, 맞은편에 팽나무 십터가 조성되어 있어 무더위를 피하거나 휴식을 취하기에 좋다. 팽나무숲의 경우 신평마을 꼭대기에 위치해 있는데, 이를 통해 겨울철에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을 막는 나무 울타리, 즉 '우실'로도 기능한 것으로 보인다.





주민의 손길과 땀으로 영그는 평일도 다시마

완도군 약산도 당목항에서 출항한 여객선이 닿는 평일도에 이르면 유난히 눈에 띄는 풍경이 있다.

바로 섬마을과 더불어 드넓은 논·밭에 푸른 천 그물이 펼쳐진 모습이다. 이는 다시마를 말려 상품으로 만드는 건조장이다.

평일도는 전국에서 대표적인 다시마 주산지로 이름난 곳이다. 국내 다시마 생산량의 70%를 차지한다. 전통적으로 김·미역 양식이 발달했지만, 1980년대 후반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한 어민들의 노력으로 다시마 양식기술 보급·정착이 이뤄졌다.

수온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11월에 포자를 양식장에 설치된 원줄에 끼운 후 정월 무렵 질 좋은 포자 줄기만 남겨 키워낸다. 다시마 채취는 보통 5, 6월경 이뤄지는데, 선박 갑판에서 씻어낸 뒤 트럭에 싣고 섬 곳곳에 있는 밭에 널어 말린다. 생물 상태인 다시마를 걷고 말리는 과정은 장마 기간을 피해 진행되는데, 햇볕이 강한 낮에 널면 빛깔이 나지 않고 딱딱해져 상품화하기 어렵다. 그래서 동이 틀 무렵이나 해가 지는 저녁에만 이뤄진다.



청정 완도와 보해양조가 만났다. ‘다시, 마주’

생일도, 보길도, 신지도, 약산도, 평일도 등지를 아우르는 완도에서 자랑하는 해조 상품, 다시마가 전남 지역의 향토기업인 (주)보해양조와 만나 ‘다시, 마주’라는 로컬 소주로 출시됐다. ‘다시, 마주’라는 상품명에는 사람들이 서로 마주하며 가치 있는 시간을 공유하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부드러운 찰기를 지닌 다시마가 소주와 합쳐지면 어떤 맛일까? 주류업체에서는 술에 갖든 독특한 쓴맛을 덜어내는 대신 부드러운 목넘김과 끝맛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어필한다. 또 과당이 포함되지 않았고 도수가 15.8%로 낮춰져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문화 경향이 반영됐다.

여기에는 완도군과 완도금일수협이 공이 컸는데, 지역 공공·금융기관과 기업 간 다시마 소주 개발 협약(MOU)은 수산물 촉진을 위한 선진 사례로도 손꼽혀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금일수협에서는 전국 수협 가운데 보기 드물게 홍보팀을 운영하여 수산 상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뿐만 아니라 다시마 상품 소비 촉진에 따른 양식 어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식당가와 편의점 등 다양한 상점이 밀집한 금일을 소재지 곳곳에 홍보 포스터가 부착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 뜨거운 요즘이다.

RESOURCES

섬, 무엇이 나고 자라나요. '농사월력'

1월부터 12월까지,
평일도 밭과 바다에서 나고 자라는 모든 것!

해산물

삼치	1월~5월
미역	3월~5월
멸치	3월~6월
전복	4월~5월
다시마	5월~6월
새우(대하)	8월~10월

농작물

마늘	3월~5월
깻잎	4월~8월
상추	5월~8월
참깨	5월~8월
고추	6월~10월
쌀	9월~10월



책으로 만나는

어촌속담집『漁村俗談集』(1980년)

진질이 무성한 해는 해태가 잘 된다

▲ 통용 지역 : 완도 / 완도군청 강 봉



• 과학적 타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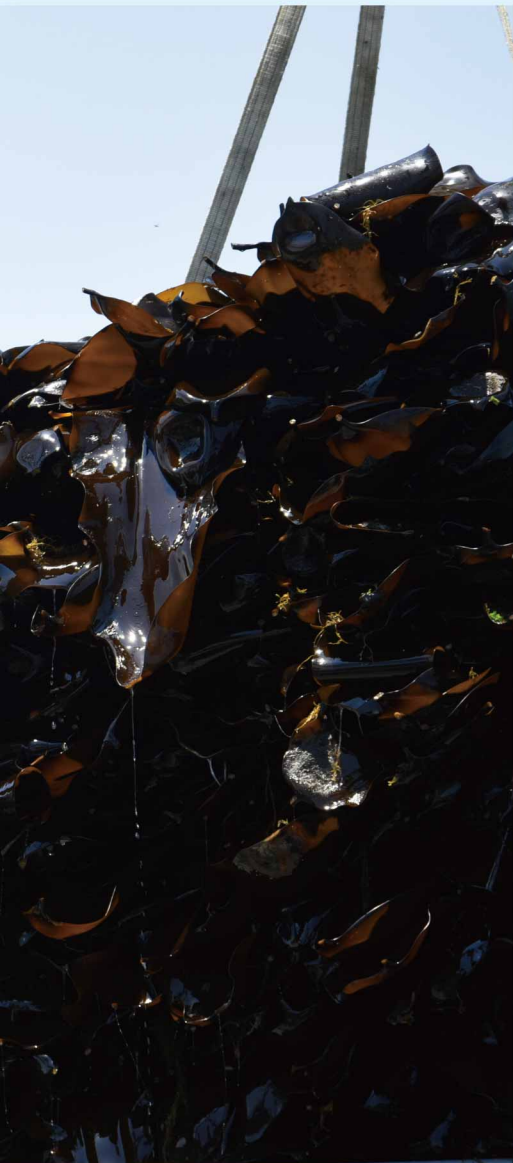
‘진질’은 ‘잘피^①’의 사투리

잘피는 간조선(干潮線)으로부터 수심이 2, 3미터쯤 되는 곳에 많이 서식하는 수중 현화식물(顯花植物)로서 영양염이 많고 적음에 따라 성장이 좌우된다.

• 현대적 풀이

김은 홍조류에 속하는 해조(海藻)로서 일단 김발에 부착한 포자는 영양염이 부족하면 성장이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며, 반대로 영양염이 풍부하면 피해 없이 잘 자란다.

① ‘잘피’는 바닷속에 완전히 잠겨서 자라는 속씨식물이다.



바다생물 인문학

다시마(昆布)

자산어보를 저술한 손암 정약전은 다시마를 미역(海帶)으로 표현했는데 다음과 같다.

길이는 열 자 정도로서 한 뿌리에서 잎이 나오고 그 뿌리 가운데에 한 줄기가 나오는데, 그 줄기에서 두 날개가 나온다. 그 날개 안은 단단하고 바깥쪽은 부드러우며 주름이 도장을 찍은 것과 같다. 그 잎은 옥수수잎과 비슷하다. 1, 2월에 뿌리가 나고 6, 7월에 따서 말린다. 뿌리의 맛은 달고 잎의 맛은 담담하다. 임산부의 여러 가지 병을 고치는 데에 이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것들이 자라는 곳은 해조(海藻)와 같은 지대이다. <본초강목>에서 해대(海帶)는 해조(海藻)를 닮았으나 거칠고 부드럽고 질기며 길다. 이들을 먹으면 주로 성장을 재초하고 부인병을 고친다고 했는데, 이는 곧 이 미역이다.

『자산어보』중에서

조선에서 생산되는 곤포(昆布)는 긴다시마(浜中昆布)의 일종으로, 함경남도 서호진(西湖津) 이북 연안 일대에서 생산되며, 북쪽으로 갈수록 많이 분포한다. 무수단(舞水端) 부근에서 생산되는 것은 조체(藻體)가 가늘고 작지만, 북쪽으로 가면 점차 크고 긴 것이 생산된다. 대부분 연안 암초에 족생(簇生)하는데, 종래에는 오로지 조선인이 채수(採水)하였다. 매년 수확철이 되면 멀리 강원·경상남도에서 채수업자가 몰려와 연안에 가건물을 짓고, 왕성한 활동에 종사한다. 보통 긴 자루가 달린 낚이나 말개를 사용하며, 암초에서 채수한 곤포(昆布)는 솔에 넣어 잠시 삶은 다음 모래 위에 펼쳐 건조한다. 채수기는 여름 6, 7월 무렵이며, 이를 적재하기 위해 특별히 기선(汽船)이 기항하는 것을 관례로 한다. 판로는 조선 내지(內地)로, 일단 그것을 원산(元山)에 집적한 후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 수송한다.

『한국수산지』중에서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완도금일수협 박찬진 경매사



Q1 섬을 여행하는 이들에게 추천해 줄만한 섬 명소가 있는지?

A1 용항리에 몽돌해변이 있다. 바닷물이 반복해서 들고 나며 몽돌을 굴러대는데, 그 맑은 소리가 듣기 좋다. 또 금일명사십리해수욕장과 접한 동백리 해안으로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다. 선선해질 시간에 산책하기 좋다. 이 밖에 용굴이나 망산 등 주요 명소가 여기저기 있지만, 앞서 말한 곳이 추천할 만한 여행 명소다. 여름 피서철에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 월송리 해송림인데, 수령이 오래된 고목(古木)이 많아 그늘 쉼터로도 안성맞춤이다. 어릴 적만 하더라도 백사장을 찾아 해수욕이나 캠핑을 즐기려는 여행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발 디딜 틈 없이 설치된 텐트 사이를 비집고 가로질러 뛰는 재미가 쏠쏠했다. 간조시에 바닷물이 500m 정도 쪼그라들 만큼 백사장도 넓었다. 해변을 걷다 보면 얇은 바람결에도 고운 모래가 바지 호주머니에 가득 찼다.

Q2 평일도 주민 생활권은 섬에 한정되어 있는지?

A2 주민 대다수는 의료·교육 등 사회 서비스가 취약한 인접 중소도시 대신 좀 더 차를 타고 나가 광주권을 왕래한다. 주민들의 생활 범위나 이동 경로를 추적하다 보면 어떻게 섬 사회가 변화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 흥미롭다. 일례로 예전에는 평일도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이 강진군 마량항을 오갔다. 그 영향으로 사람들은 강진 지역으로 배를 타고 나가 곧장 광주로 올라갔다. 그런데 오늘날 약산도에 연도교가 놓여 당목항까지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목포시나 순천·여수 등지로 분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바닷길이 바뀌거나 없던 교량이 생기면서 그간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던 주민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준 셈이 됐다.

Q3 다시마를 수확하는 시기는 언제쯤인지?

A3 평일도에서 다시마 양식업에 종사하는 어가는 약 3~400 어가 정도로 상당한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 미역과 미역귀, 다시마, 톳 등 다른 해조류 양식업과 병행하는 이들보다 다시마 농사만으로 일 년 수입을 버는 경우가 많아 특정 시기에 무척 바쁘다. 이런 영향으로 평일도는 국내 지역 중 '해조류 양식의 메카'라고 알려져 있다.

매년 5, 6월 무렵 다시마를 수확하는데, 장마 기간과 무더운 여름철을 피하는 게 보통이다. 해조류 양식은 육상 식물의 식생 변화와 같은 이치인데, 비가 많이 내리는 기간에 다시마 상태를 보면 바다에 민물 농도가 높아지면서 상품성이 없는 생물들이 다시마에 붙어 기생한다. 그래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생산물은 전복 먹이로 활용된다. 또 수온이 상승하는 여름에 이르면 녹아 버린다. 그래서 6월 장마 전에 수확을 마쳐야 한다. 바다 농사가 활발한 시기에는 섬을 들고 나는 인구 편차가 꽤 큰 편으로, 금일을 전체 인구만큼 외국인 인부가 투입되어 계절 근로 형태로 일정 기간 상주한다.

Q4 섬에서 자연 건조하는 다시마가 많던데?

A4 섬 곳곳에 푸른 그물이 펼쳐진 자리가 많은데, 모두 다시마 건조장이다. 건조 작업은 보통 해가 뜨기 전인 새벽과 일몰 후 저녁에 이뤄진다. 오전 4시 반에서 5시 반 사이 건조장에 널어두었다가 정오 무렵



걷는다. 또 해가 지는 오후 6시쯤 다시 널어 어둠이 내려앉은 밤에 거둬들인다. 혹여 건조장에 빈자리가 생기면 시시때때로 바다에서 생물을 채취해서 채우는 작업을 반복한다. 간혹 다시마를 건조기에 넣어 말리는 이들이 있는데, 기계에만 의존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기계로 건조한 다시마는 스스로 습기를 머금지 않는 한계가 있어 가공 단계에 이르면 파지가 상당량 발생한다. 하지만 노천(露天)에서 자연 건조하는 다시마의 경우 끊임없이 광합성 작용을 반복하는 특성이 있다. 다시마는 본래 적갈색을 띠는 해조류인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까맣게 변하는 동시에 살이 오르며 단단해진다. 사람들이 습도를 조절하려고 집안에 참숯을 넣는 사례와 같다. 새벽녘 습기를 머금었다가 한낮 열기에 뿔어내고 다시 저녁에 습기를 빨아들이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가히 자연과 인간이 함께 빚어낸 명품이다.

Q5 완도금일수협에서 위판장 경매사로 활동하고 있던데?

A5 경매사로 근무하는 환경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다. 보통 오전 5시 30분까지 사무실에 출근한 후 6시부터 9시까지 경매 상품으로 오른 다시마의 무게를 측정하는 ‘계근 작업’을 진행한다. 계근이 끝난 후 다시마 위판 과정을 거쳐 마무리하면 오후 4시 반에서 5시 반 정도에 이른다. 총 근무 시간으로 보면 12시간에 가까워 수고로움이 적지 않다. 이처럼 위판 업무는 상상 이상으로 노동 강도가 높다. 경매사로 일하던 초기에는 너무 힘든 나머지 술 몇 잔에 의지하기도 했다. 그렇게 지친 몸으로 다음날 출근하며 고된 일상을 이어갔다.

특히 마음이 힘든 날에는 괴로움이 더 컸는데, 위판을 진행하면서 다시마 단가가 낮게 나와 생산자들에게 쓴소리를 듣는 날이 그러했다. 위판 과정은 전체 업무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가장 큰 문제는 위판하는 도중 상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다. 다시마는 여러 장씩 겹쳐놓은 상품 중 눈에 보이는 면을 보고 전체 가격을 매긴다. 그런데 안쪽에서 하품(下品)이 나오면 어떻게겠는가. 이런 경우가 더러 있어서 경매가 끝났음에도 어업인과 중매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면 갈등을 해소하는 날이 왕왕 있다. 어디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니 항상 자리를 지켜야 하는 점도 일종의 업무이다.

하지만 마음 아픈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경매사로 근무하며 느끼는 자부심 또한 대단하다. ‘대한민국 다시마 단가는 우리가 좌우한다’는 점이 그렇다. 라면 업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농심에서 생산하는 ‘너구리라면’에 평일도 다시마가 들어간다. 생산 물량이 그 어느 곳보다 많은 점이 큰 배경이겠지만, 좋은 품질이 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데 일조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섬에서 다시마 농사가 활발하던 시기에는 그 생산량이 4,000톤을 넘었고, 위판 물량 역시 3,000여 톤에 이르렀다.



Q6 생물인 다시마를 상품(上品)과 하품(下品)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지?

A6 이 질문은 다시마 생산자들에게도 꽤 많이 들곤 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 답은 간단하면서도 어렵다. 다시마를 중매인이 산 후 인건비를 최대한 들이지 않는 게 상품이다. 쉽게 말해 다시마에 잡다한 불순물이 붙어 있다면 재차 인력을 투입해서 세척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처음부터 청결하고 질 좋은 다시마였다면 추가로 인건비나 작업비를 들일 필요가 없었을 테니 2차 비용을 벌어들인 셈이다. 나아가 경쟁 입찰을 통해 더 좋은 값을 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꾸준한 관심과 사랑으로 다시마를 키워내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잘 건조한 다시마라도 사람 손을 자주 타면 견고함이 떨어져 자칫 부러지거나 파지로 전락해 버린다. 세심히 관리해서 채취한 다시마를 정성 들여 건조한 후 위판에 부치면 중매인들이 서로 웃돈을 얹어가며 사지 않겠는가. 그 후 생산자는 계속해서 좋은 상품을 내기 위해 노력할 테고, 중매인과 생산자는 서로를 신뢰하는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이러한 개인 사례가 널리 확산되면 그 시너지 효과를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다. 생산자 모두가 최상품을 팔아 좋은 값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바람이다. 앞으로도 평일도가 대한민국 다시마 업계를 주도하는 최적의 생산지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완도군 소랑도 유희동 이장



Q1 > 그간 섬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A1 > 옛날에는 여느 가정처럼 집안에 형제·자매가 많았다. 먹고 살기 빠듯한 시절이라서 부모님이 마음 놓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못했다. 9남매 중 유년 시절부터 배움에 관한 열망이 컸던 나는 평일도에서 중학교 2학년 과정을 마치고 누님이 계셨던 나주 영산포 중학교로 전학했다. 당시 누님 가족은 소를 키우면서 블록 벽돌을 생산하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숙 개념으로 먹고 지내며 학교에 등·하교하는 시간을 제외하곤 밤낮으로 일을 도왔다. 아침 일찍 일어나 일을 돕고, 오후에는 소꼴을 베어 왔다.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후에는 곧바로 군대에 부사관으로 임관했는데, 청소년 시절 일손을 보태며 체득한 경험이 큰 자산이었다. 군 생활 대부분이 삽질이나 낫질과 같은 야외 작업이었으니 부대에서 일찍이 ‘도사님’으로 불리곤 했다. 3년 전 고향이 그리워 귀향한 후 지금껏 지내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군에 입대하면서도 배움에 대한 목마름이 컸다. 그래서 자격증이 꽤 많다. 부대 생활을 잘하는 인원으로 선발되어 군 위탁 교육에 참여, 부대에 출근하지 않는 대신 2년간 명지대학교 전자과를 다녔다. 다른 전공에도 눈길이 갔다. 그래서 같은 대학 내 행정학과로 편입해서 3, 4학년 과정을 마쳤다. 군 전역을 1년 남긴 시점에는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

Q2 > 살림집이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데?

A2 > 소랑도로 귀향한 후 당장 살 집을 구해야 했다. 섬에는 이미 형님과 누님 집이 각각 있었지만, 지금 사는 집을 리모델링해서 지내고 싶었다. 건축업자에게 모든 과정을 맡기기보다는 스스로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평생교육원에 개설된 건축 과목을 수강했다. 또 실전 경험을 쌓기 위해 몇 개월쯤 건설 현장에서 일한 뒤에 작업을 시작했다. 감사하게도 형제자매 모두 손재주가 좋아 인테리어나 조적, 선반 만들기 등 세부 과정 중 상당 부분을 해결해 주었다. 막내 매제가 순천지역에서 골재 사업을 했는데, 모래를 가득 실은 25톤 트럭을 끌고 섬을 찾아주었다. 그렇게 큰 트럭이 동네에 들어온 건 처음이었다. 섬살이 역시 그간 바빠 지낸 인생 여정을 꼭 닮았다. 지금은 소랑도 이장으로 활동함은 물론 완도군 SNS 기자 활동과 함께 호남지역 뉴스라인 인터넷 기자, 이장단 총무, 금일읍주민자치위원회 대의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Q3 ▶ 평일도와 소랑도 사이에 다리가 놓였는데 언제쯤 완공됐는지?

A3 ▶ 집안 어른이신 작은아버지(유인국 님)가 섬 주민과 함께 숙원사업인 연도교 공사를 위해 발 벗고 나선 끝에 착공해서 2006년 9월 무렵 완공되었다. 다리가 놓이기 전에는 섬에서 바다 건너 사동리까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세 번씩 나룻배가 다녔다. 처음에는 노 젓는 배로 왕래하다 좋은 시대를 만나 엔진 선박으로 교체됐다. 배가 귀한 시절이라서 마을 앞 선창이 선박을 지키는 훌륭한 요새였다. 여름 태풍이 몰아치면 안전한 피항을 위해 옹기종기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뤘다. 적잖은 세월이 지났지만, 주민들이 손수 일손을 보태어 돌을 저 날라 지은 역사가 있다.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니 훌륭한 마을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작은 돌은 마을 곳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큰 돌이 귀했다. 그래서 미리 주민들을 대피시킨 후 야트막한 돌산에 설치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 큰 돌을 구했다. 폭발하면서 크고 작은 돌들이 이리저리 튀기도 했는데, 하늘로 솟구친 돌들이 초가·양철 지붕으로 날아드는 바람에 커다란 구멍이 나기도 했다.

지금의 마을회관 자리에 옛 '소랑분교'가 있었다. 고향 선배님들의 경우에는 배를 타고 통학하는 형태로 금일동초등학교를 다녔다. 언젠가 풍랑을 만난 배가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통학하던 학생 수십 명이 익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교육부에 건의한 끝에 학교가 지어졌다. 집마다 배분된 블록 벽돌과 모래를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았고, 바쁜 나날에도 일손을 보태며 교사(校舍)를 지었다. 한동안 자리를 지키던 학교는 동네에서 좀 더 떨어진 언덕으로 옮겨갔다. 전체 6개 반에 100여 명 규모로, 작은섬이지만 학생 수가 많은 편이었다. 그 후 자녀들을 큰 섬이나 육지로 유학시키는 문화 또한 빠르게 확산되면서 격년제로 운영되다가 소랑대교 완공 후 폐교 수순을 밟았다.



완도군 금일읍 소랑대교



Q4 요즘 섬 인구 감소 문제가 큰 이슈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A4 여느 섬과 마찬가지로 소랑도 역시 주민이 점점 줄고 있다. 날이 갈수록 고령화가 심해지는데 청년이 유입되지 않아 언제 무인도로 바뀔지 모르겠다. 고향에 귀향한 후 아기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연세가 60대에 이른 주민이 스물 몇 명, 7·80대 어른이 32명이다. 섬을 살리려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노력하는 건 좋지만, 지금 필요한 건 그나마 섬에서 지내는 이들이 화합하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섬에 귀향할 당시 청소하는 주민이 드물어 섬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그래서 솔선수범해서 빗자루를 들고 동네를 청소하기 시작했다. 묵묵히 하다 보니 실력이 늘어 청소 시간이 줄어들었다. 바다 지킴이로 활동하면서부터는 송풍기를 사서 좀 더 손쉽게 쓰레기를 수거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미화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마을 방송 문자를 전했다. 이 활동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도움이 됐는데, 자주 걷다 보니 섬 환경과 지리를 이해할 수 있었고, 지역 주민과 교류할 기회도 늘었다. 마을을 깨끗하게 단장하고 꾸미는 전라남도 공모사업에도 참여해서 선정되는 데 노력했다. 꽃과 나무를 심어 우중충한 분위기를 살리면 좋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감사하게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좋은 결과를 얻어 공모사업에 선정, 마을 주요 도로에 방구목 화분을 설치했다. 미관이 좋아지니 주민 의식도 점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은 주민 모두가 환경 가꾸기에 노력하고 있다. 할 일은 찾으면 많다. 각자 개인의 이익과 안위만 찾다보면 결국 ‘공동체’라는 에너지가 흩어지고 만다.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완도군 평일도 투어 가이드

평일도 일반현황

가구·인구	2,074가구·3,481명
면적	18.90km ²
해안선 길이	51km
주요 관광지	읍사무소, 농·수협 파출소(육경), 출장소(해경), 보건지소, 공공도서관, 119지역대, 우체국, 금일초·중·고등학교



평일도 식당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황금식육식당	전남 완도군 금일읍 도장길 72	061-554-5567
화전반점	전남 완도군 금일읍 하화전1길 9	061-555-1366
파라솔식당	전남 완도군 금일읍 금일로 267	061-552-1236
동백회식당	전남 완도군 금일읍 하화전길 4	061-553-3092
피자음 치킨리	전남 완도군 금일읍 금일로 299	061-553-8590
대정가든	전남 완도군 금일읍 금일로 307	061-555-2233
요미요미	전남 완도군 금일읍 금일로 358-4	0507-1445-8274
수진정식당	전남 완도군 금일읍 금일로 352	061-552-9950
청포식당	전남 완도군 금일읍 금일로 352	061-554-0777
김가네 금일점	전남 완도군 금일로 359	061-554-8778
청송식당	전남 완도군 금일읍 금일로 385	061-554-0969
치킨먹고 인생피자	전남 완도군 금일읍 금일로 386	061-553-8253
금일국밥	전남 완도군 금일읍 금일로 386-1	061-552-2954
진미식당	전남 완도군 금일읍 금일로 388	061-553-3000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중앙식당	전남 완도군 금일읍 감목길 1-1	061-553-2149
보듬회관	전남 완도군 금일읍 감목길 1-1	061-553-6002
조아서치킨	전남 완도군 금일읍 감목1길 7-6	061-552-4321
일미식당	전남 완도군 금일읍 감목1길 3	061-553-2003
도란도란	전남 완도군 금일읍 감목길 4-2	061-553-4540
옥이네 손맛밥상	전남 완도군 금일읍 금일로 400	061-553-9981
한양족발, 순대국	전남 완도군 금일읍 금일로 400	061-553-9981
가정식당	전남 완도군 금일읍 감목3길 14-4	061-555-0624
치킨하우스	전남 완도군 금일읍 금일로 439	061-554-9815
해금강횃집	전남 완도군 금일읍 금일로 605	061-553-3138
미송가든	전남 완도군 금일읍 금일로 757	061-555-9300
하얀집	전남 완도군 금일읍 금일로 836	061-553-3512
동백횃집	전남 완도군 금일읍 금일로 876	061-553-4159



평일도 숙박업소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청해여관	전남 완도군 금일읍 하화전1길 12	061-553-2009
금일장	전남 완도군 금일읍 감목길 8-1	061-553-2035
코로나 펜션	전남 완도군 금일읍 동백길 18	0507-1319-9536
동백회식당민박	전남 완도군 금일읍 하화전길 4	061-553-3092
대정민박	전남 완도군 금일읍 화목리 704-1	061-555-2233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초원의집 민박	전남 완도군 금일읍 금일로 720	061-552-6199
동백민박	전남 완도군 금일읍 동백길 5	061-552-9954
원조펜션	전남 완도군 금일읍 금일로 858-1	061-553-2245
몽돌민박	전남 완도군 금일읍 용항길 243	010-6418-2015



평일도 여객선 운항 시간표(완도 약산도 ↔ 평일도/완농페리호, 신양메이슨호, 평화훼리호)

항차	당목항 → 일정항		일정항 → 당목항	
	출발	도착	출발	도착
1	06:30	06:50	06:30	06:50
2	07:00	07:20	07:00	07:20
3	07:40	08:00	07:30	07:50
4	08:10	08:30	08:10	08:30
5	08:40	09:00	08:40	09:00
6	09:10	09:30	09:10	09:30
7	09:30	09:50	09:40	10:00
8	10:00	10:20	10:05	10:25
9	10:30	10:50	10:30	10:50
10	11:00	11:20	11:00	11:20
11	11:30	11:50	11:30	11:50
12	12:00	12:20	12:00	12:20
13	12:30	12:50	12:30	12:50
14	13:00	13:20	13:00	13:20

항차	당목항 → 일정항		일정항 → 당목항	
	출발	도착	출발	도착
15	13:30	13:50	13:30	13:50
16	14:00	14:20	14:00	14:20
17	14:30	14:50	14:30	14:50
18	15:00	15:20	15:00	15:20
19	15:30	15:50	15:30	15:50
20	16:00	16:20	16:00	16:20
21	16:30	16:50	16:30	16:50
22	17:00	17:20	17:00	17:20
23	17:30	17:50	17:30	17:50
24	18:00	18:20	18:00	18:20
25	18:30	18:50	18:30	18:50
26	19:30	19:50	20:00	20:20
27	21:00	21:20	21:30	21:50

* 상기 시간은 기상 상황 및 여객 차량 증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약산여객선터미널 : 전남 완도군 약산면 당목길 144

· 일정항 여객선터미널 : 전남 완도군 금일읍 금일로 2-4

※ 여객선 매표소 안내

· 약산농협 매표소 : ☎ 061-553-9088

· 당목 매표소 : ☎ 061-553-9085

· 운임 : (성인 1인 3,500원, 2 ~ 12세 1,000원)

※ 26, 27항차 여객선 야간 운항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평일도

섬 여행 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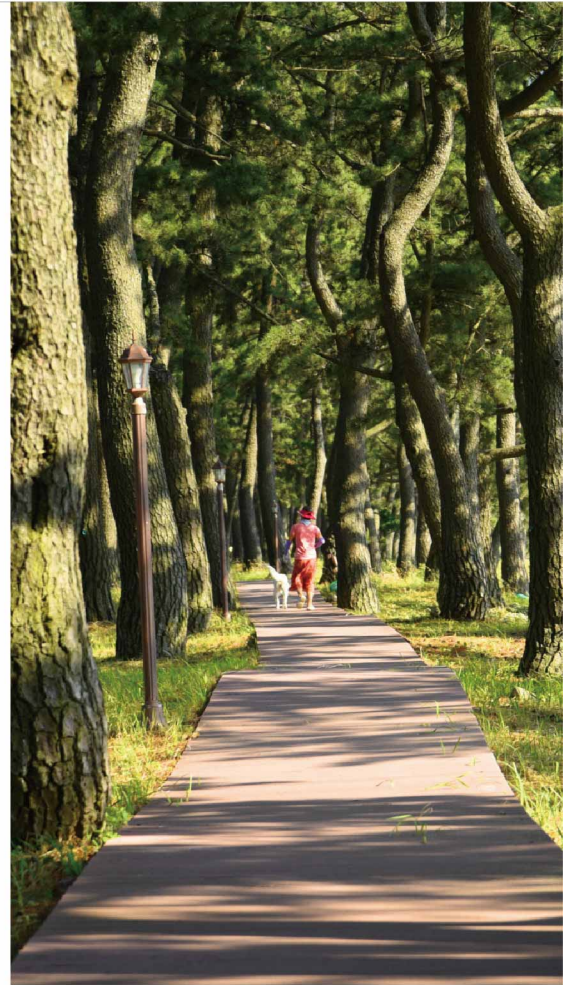


월송리 해송림

완도군 해안에 분포하는 소나무숲 가운데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 평일도 월송리 해송림이다. 월송리(月松里)의 지명 유래를 살펴보면 ‘소나무 위로 뜨는 아름다운 모습’이란 의미가 담겨있다. 해송림은 그 길이가 1.2km, 폭 100m에 달하며, 수령 200여 년에 이르는 소나무가 1,000여 그루 정도 자생하고 있다. 밤에 뜨는 달 만큼이나 여름철 지는 해 역시 장관을 이루어 피서철에는 야영을 즐기기 위해 많은 여행객이 즐겨 찾는다.

해변은 모래사장과 갯벌이 혼합된 지질로 구성되어 해수욕과 바다 체험을 함께 즐기기 좋다. 숲을 가로질러 조성된 데크 산책로는 평소 주민을 위한 마실 코스이자 생활 체육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찾아가는 길. 금일읍 월송리 산 144-7



금일명사십리해수욕장

금일해당화해변으로도 불리는 금일명사십리해수욕장은 월송리 해송림과 맞닿은 섬 여행 명소로, 드넓은 해안에 펼쳐진 고운 모래 위를 넘실대며 들고나는 파도가 장관이다. 남지나해에서 밀려온 파도가 이곳을 기점으로 마지막 에너지를 발산하며 닿는데, 끝없이 반복되는 거친 모습은 여름 무더위로 한껏 지친 여행자들의 갈증을 씻겨주기에 더없이 좋다. 이 해수욕장은 평일도 동쪽에 자리한 사동리에서 서쪽으로 월송리, 동백리 해안으로 뻗어있는데, 길이 3.6km, 폭 150m에 달하는 규모를 자랑한다. 모래사장에서 바다 너머 수평선으로 시선을 옮기면 금일읍에 속한 소랑도와 다랑도, 섭도, 부도, 우도, 황제도, 원도 등 20여 개에 이르는 작은섬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뷰 맛집으로도 손색이 없다.

찾아가는 길. 금일읍 동백리 산 148-7임





용굴

금일읍 소재지를 지나 남쪽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만나는 구동마을. 이 마을 해안에는 해식작용으로 생긴 해안굴인 용굴이 있다. 야트막한 산언저리에 자리해 있는데, 막힘이 없이 뚫려 있어 흡사 신안군 홍도의 10경 중 하나인 독립문 바위를 연상케 한다. 이곳은 용이 굴에서 나와 절벽을 기어오르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전설 이야기를 지닌 특색있는 섬 명소이다. 육상 수산업 양식장이 접해 있지만, 도로에 설치된 이정표를 통해 걸어서 찾아볼 수 있다. 용굴 주변에는 푸른 바다와 함께 기암괴석으로 꾸며진 해안선이 길게 늘어서 있어 여행을 기념하는 사진 촬영 명소로 삼기에 좋다.

찾아가는 길. 금일읍 구동리 산269-7임

평일도 작은 섬 여행지. 소랑도

소랑도는 2006년 아치형 연도교인 소랑대교가 개통하면서 평일도와 상시 왕래할 수 있는 유일한 섬이다. 면적이 1km², 해안선 길이가 0.5km 정도로 크지 않지만, 금일읍 월송리, 동백리와 더불어 수산 양식업이 발달한 곳이다. 섬에 관한 지명 유래는 마을 주민들의 구전을 통해 전해지는데, 이곳에 접한 바다가 항상 잔잔한 물결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섬의 형태가 소라처럼 생겼다고 해서 소랑도로 불리고 있다.

평일도 사동리에서 소랑대교를 따라 건너가다 보면 섬을 소개하는 표지석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다리를 놓는 게 주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숙원사업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약 70여 년 전인 1952년 6월 무렵 금일초등학교로 통학하던 어린 학생들을 실은 나룻배가 바다를 건너다 침몰하여 소중한 생명이 바다에 묻혔다. 이를 계기로 섬 주민들은 끊임없이 정부 부처와 전라남도, 완도군 등지에 연도 사업을 요청, 50여 년이 지난 2006년에 이르러 소랑대교가 완공됐다.

소랑도는 소박한 마을 풍경이 일품이라서 천천히 걸으며 눈에 담기에 좋다. 섬마을 포구에 접한 소랑보건진료소 뒤편으로 방향을 틀어 나아가면 섬을 한 바퀴 돌아보기 좋은 둘레길에 이를 수 있다. 해안지역에 조성된 다시마 건조장을 왕래하는 어민을 위한 목적으로 임도가 놓였다. 다시마를 싣고 오가는 차량들을 만날 수 있어 자가용으로 돌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도보로 트래킹을 즐기면 좋겠다. 코스 중간에는 팔각정 쉼터가 있는데, 접근이 어려운 평일도 해안은 물론 다시마 양식장을 내려다 볼 수 있어 찾아보길 추천한다.

찾아가는 길. 금일읍 사동리 706-3(소랑보건진료소)



TRAV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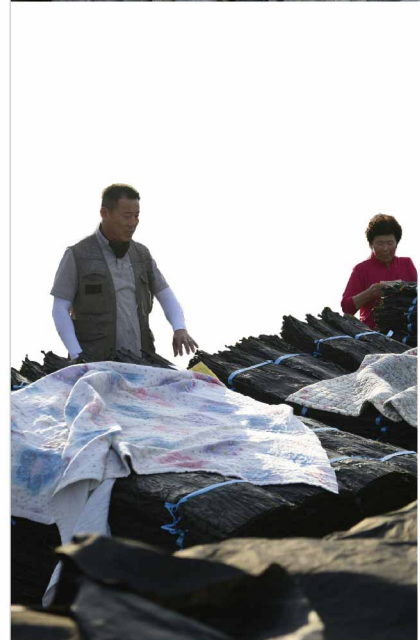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특 집

완도금일수협
다시마 위판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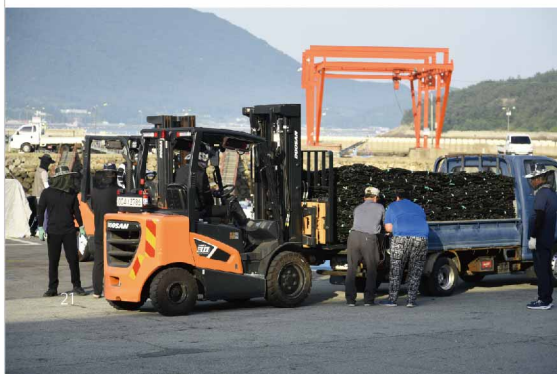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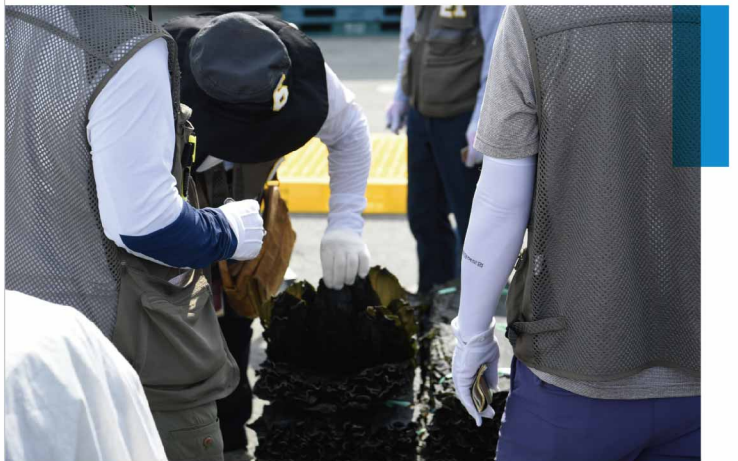


평일도
다시마 위판 경매를
위한 사전 준비





다시마 위판 시작! 분주한 현장 속 모습~



NEWS & ISSUE

섬, 소식을 전해드려요.

이달의 주요 섬 뉴스



2024 제5회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 전남에서 그 막을 열다

전라남도에서 주최하고 국제워크캠프기구가 주관 하는 ‘제5회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이하 워크캠프)가 전남 섬 지역에서 개최됐다. 7월 15일부터 8월 25일 까지 전남 12개 섬에서 1주일간 4회에 걸쳐 세계 25개국·100여 명의 청년이 참여하는 국제 행사다. 7월 15일부터 21일 까지 신안군 도초도, 비금도, 하의도·진도군 상조도, 하조도, 나배도 등지를 중심으로 그 막이 올랐다. 워크캠프는 ‘글로벌 아일랜드’를 주제 국내외의 청년들의 활발한 봉사활동과 주민 교류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세계자연유산인 한국 갯벌과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물론 섬 문화·인물·경관자원을 홍보에도 목표를 두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청년봉사단체 ‘섬즈업’, ‘섬마을인생학교’ 등 다양한 기관·단체 협력을 통해 의미와 가치를 더했다.

해당 워크캠프에 참가한 청년들은 각 섬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6박 7일간 참여했다. 신안군 도초도·비금도·하의도에서는 세계자연유산인 한국 갯벌에서 해안 정화 활동에 이은 김대중 대통령 생가 방문, 한국화 작가들과 함께하는 라이브 섬 스케치 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진도군의 경우 하조도·상조도·나배도 일원에서 조도군도와 각 국가별 국기를 벽화로 그리는 봉사활동과 함께 신전 해변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 등이 진행되었다. 워크캠프는 서로 다른 국적과 언어, 문화와 전통을 가진 청년이 함께 생활하며 봉사활동과 문화교류를 하는 100년 역사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2020년부터 개최된 이래 총 35개국·302명의 국내외 청년이 전남 17개 섬을 방문했다.

신안 선도 주민, 정원·마을공동체 문화 배우러 선진견학 다녀오다

가고 싶은 섬 사업에 선정된 수선화의 섬 선도 주민들이 7월 4일부터 5일까지 정원·마을공동체 문화 관련 우수 사례를 배우기 위해 전남·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선진 견학을 다녀왔다. 이번 견학에는 섬 주민을 비롯하여 신안군청 작은섬 정원과, 전라남도 전남섬발전지원센터 담당 공무원 등 총 30여 명이 함께 했다.

먼저 고령층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운영 중인 여수시

할매부루스 카페·공방을 방문하여 마을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굿즈 상품 제작·판매에 관한 강의를 청취했다. 경남 남해군에서는 블랙베리를 수확해서 잼과 팔빙수 등 식·음료 가공·판매가 이뤄지는 썸팝 1973 협동조합을 방문한 데 이어 민간 정원으로 운영 중인 섬이정원을 찾아 정원 공간 구성이나 플라워 인테리어 등을 관람했다. 이튿날 참석자는 순천만국가정원을 찾아 지속 가능한 정원 관리·운영이란 주제로 강의에 나선 모세환 강사의 현장 강의를 듣고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견학에 참석한 한 주민은 “선진견학을 통해 선도가 좀 더 뚝뚝 뭉치는 공동체로 거듭나길 바라며, 현장 학습을 통해 섬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도록 노력하자고 소감을 밝혔다.”

선도가 수선화의 섬으로 알려진 데는 이곳을 고향으로 둔 현복순 씨가 귀향하여 10여 년 전부터 수선화를 심기 시작하면서 부터다. 이를 계기로 전라남도과 신안군에서 가고 싶은 섬 사업의 일환으로 수선화정원을 조성, 매년 3, 4월 무렵 수선화 축제를 개최하여 많은 섬 여행객의 방문을 이끌기도 하였다. 수선화꽃의 개화 기간이 짧은 아쉬움을 보완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금영화를 심어 연이은 꽃 축제를 기획했다. 이와 더불어 무인 카페, 식당 조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소득 증대와 여행객 만족도 상승 등 생산 효과를 창출하는 데 노력해오고 있다.



가고 싶은 섬 신안 고이도 섬코디네이터 모집 설명회 개최

2023년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신안 고이도에서 섬코디네이터 모집을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섬코디네이터’는 섬에서 지내며 방문객, 여행자에게 섬 곳곳에 조성된 여행 명소나 숙박 공간 등을 가이드하는 전문 인력이다. 전남도에서는 2017년부터 가고 싶은 섬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양성해 현재 약 50명의 섬코디네이터가 각 섬에서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고이도 출장소장을 비롯 한 약 30 여명의 마을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 해설가의 역할과 섬 코디네이터 자격증 취득 과정, 섬코디네이터 자격 취득 후 활동 등을 주제로 자세한 안내가 이뤄졌다. 마을 곳곳에 갯국이 식재되어 꽃으로 물들이는 섬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고이도, 향후 섬을 방문할 여행객이 좀 더 안전한 탐방 속에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의식과 역량 강화를 위한 섬코디네이터 교육이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



2024
전라남도 섬발전지원센터



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소리
시옷 -

2024
전라남도 섬발전지원센터